

중국제조 2025

[中國製造 2025, Made in China 2025]

요약 '중국제조 2025'란 2015년 5월 8일 중국 국무원(國務院)이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발표한 산업고도화 전략을 말한다.

목차

1. 질적인 면에서 제조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산업고도화 전략
2. 30년간 3단계에 걸쳐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9대 과제
3. 노동·자원집약형 전통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스마트산업으로

질적인 면에서 제조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산업고도화 전략

'중국제조 2025'는 과거 중국의 경제성장이 '양적인 면'에서 '제조 강대국'이었다면, 앞으로는 혁신역량을 키워 '질적인 면'에서 '제조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전략이다. 특히 기존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주된 목표다. 향후 30년간 10년 단위로 3단계에 걸쳐 산업고도화를 추진하는 전략으로, 10대 핵심 산업분야와 5대 중점 프로젝트 계획을 제시했다.



국내적으로는 최근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제조업을 새롭게 발전시킬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중국은 제조업의 성장에 집중하면서 단기간에 양적인 면에서 세계 최대 제조대국의 지위를 달성했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혁신역량·핵심기술·첨단설비 분야에서의 높은 대외의존도, 낮은 에너지효율과 환경오염 문제, 정보인프라 구축·응용 저조, IT와 공업 간 융합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국외적으로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제조업에 다시 주목하면서, 경쟁력 재구성과 세계적인 무역·투자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공업 4.0(Industry 4.0)’(2012), 일본의 ‘일본재흥전략(Japan is Back)’(2013), 미국의 ‘국가혁신전략’(2011) 등이 바로 주요 선진국들의 ‘재공업화’ 전략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독일의 ‘공업 4.0’이 ‘중국제조 2025’ 구상의 주요 모델이 되었다. ‘공업 4.0’은 독일이 산학연 연구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차원의 기술표준을 개발하는 시범모델이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배경에 따라, 2015년 3월 3~15일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제조 2025’가 처음 언급되었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라는 2개의 회의를 지칭한다.

30년간 3단계에 걸쳐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9대 과제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제조 2025’를 소개했고, 국무원이 2015년 5월 8일 ‘중국제조 2025’ 전문을 공식 발표했다. 여기에서 최근 성장이 더딘 중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중국제조 2025’가 향후 13.5 계획(2016~2020)과 14.5 계획(2021~2025)의 기본이며, 시진핑 정부의 산업고도화를 추진하는 핵심전략임을 의미한다.



(2015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때 ‘중국제조 2025’가 처음 소개되었다.)

13.5 규획은 제 13 차 5 개년 규획을 뜻한다. 중국의 5 개년 계획은 1953 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경제개발은 1978 년이후인 제 6 차 5 개년계획부터이다. 11.5 규획부터는 ‘계획’에서 ‘규획’으로 변경하여 정부의 행정명령보다는 정부의 유도과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5 개년 규획은 여전히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장기 플랜이다.

‘중국제조 2025’에서 제시된 향후 30 년간 세 단계에 걸쳐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단계(2015~2025) 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한국 등과 같은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이다. 양적인 면에서 달성한 세계최대 제조 대국에서 나아가 품질 · 기술 · 이윤 등의 질적인 면에서도 고도화된 제조강국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 스마트화, 노동생산성 제고, 주요 업종의 에너지소모율 및 오염배출량 감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단계(2026~2035) 는 글로벌 제조강국 내 중간 수준을 확립하는 것이다. 혁신을 통해서 경쟁우위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이 목표다.

3 단계(2036~2045) 는 주요 산업에서 선진적인 경쟁력을 갖춰, 세계 시장을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위치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3 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 대 과제를 제시했다. IT 기술 및 서비스와 제조업의 결합을 통해 제조업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고, 품질 향상 및 에너지효율 제고 등을 통해 중국 제조업의 기존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9 대 과제 중 하나로 10 대 전략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정보, 로봇, 항공, 해양, 철도, 자원, 전력, 농업, 신소재, 의료산업이 선정되었다. 이런 다양한 분야를 통해 자체 고급기술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 · 자원집약형 전통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스마트산업으로

중국 정부는 IT 기술을 통해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꾀하고, 기술 및 부품의 대외의존도를 줄이면서, 친환경 제조업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 이를 위해 ‘중국제조 2025’의 핵심으로 5 대 중점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바로 ① 국가 제조업혁신센터 구축, ② 스마트 제조업 육성, ③ 공업 기초역량 강화, ④ 첨단장비의 혁신, ⑤ 친환경 제조업 육성이다.

‘중국제조 2025’의 9 대 과제, 10 대 전략산업, 5 대 중점 프로젝트

9 대 과제	10 대 전략산업	5 대 중점 프로젝트
제조업 혁신력 제고	차세대 IT 기술	국가 제조업혁신센터 구축
제조업 기초역량 강화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스마트 제조업 육성
제조업 국제화 수준 제고	항공우주장비	공업 기초역량 강화
IT 기술과 제조업 융합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첨단장비의 혁신
서비스형 제조업 및 생산형 서비스업 육성	선진 궤도교통설비	친환경 제조업 육성
친환경 제조업 육성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품질 향상 및 브랜드 제고	전력설비	
구조조정 확대	농업기계장비	
10 대 전략산업 육성	신소재	
	바이오회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종합해서 보면, ‘중국제조 2025’는 세계 각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제조강국들과의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국의 제조업을 노동·자원집약형 전통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스마트산업으로 도약시키려는 산업고도화 전략이다.



(제 19 회 중국 베이징 하이테크 엑스포에서 공개된 움직이는 터널버스(TEB))

계획의 성공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술적인 한계, 혁신정책의 성과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 기존 성장방식과 정보화 기반 발전전략의 충돌 가능성,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로 인해 ‘중국제조 2025’가 지연될 수는 있어도, 성패를 좌우할 정도는 아니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중국의 방대한 규모 자체가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규모경제’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부 업종의 정보화 성과가 거대시장과 만나게 되면, 그 효과는 여타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중국제조 2025 [中國製造 2025, Made in China 2025]

(중국현대를 읽는 키워드 100,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